성 박소현의 섹.시.토.크

모두들 하고 계십니까?

석가 탄신일을 하루 앞둔 수요일 밤, 거리를 수놓은 색 색깔의 연등을 바라보며 걷는 김과장의 발걸음이 무겁다. 술을 좀 더 마실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뒤늦게 엄습했다.

직장인들에게 휴일전야의 술집 행은 필수 코스이다. 애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맥주잔을 높이 쳐들면서 휴일을 앞둔 나른한 기대감을 맘껏 즐겼다. 그런데 오늘의 술자리는 그리 길게 가지 못했다. 내일 가족들과 외출을 약속한 동료들이 몇 있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술자리는 일찍 파했고, 마실 때는 제법 올라왔던 취기도 술집을 나와 좀 걷기 시작하자 어느덧 사라지기 시작했다.

술이 깨는 것과 동시에 김과장의 마음에는 근심이 찾아왔다. 색 색깔의 연등을 보는 순간 그 근심은 더 구체화 되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아내 생각이 났기 때문이다. 아내는 지금쯤 아마 저 연등 못지않게 화려한 잠옷을 꺼내 입고는 귀밑에다 지난번 출장 때 사다 준 향수를 살짝 뿌린 채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휴일전야가 직장인들에게만 기대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김과장은 알고 있다. 몇 해 전 리서치 회사에서 조사한 결과를 봐도 통계적으로 부부들의 잠자리가 가장 활발한 때가 금요일과 토요일 밤 9~10시 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통계상으로만 봐도 휴일을 앞둔 오늘 밤은, '다들' 혹은 '대부분' 하고 있으며 할 예정이라는 말이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 나오며 술 조금만 마시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던 아내의 얼굴에도 어느 정도의 기대감이 벌써 자리를 펴고 있었다. 평일에는 '아, 왜 이렇게 피곤하지?'하는 멘트와 함께 한 손으로 뒷목을 잡고 두어 번 돌려주는 액션

만으로 충분히 넘어갈 수 있지만, 늦잠이 보장되는 휴일 전야에는 그것도 통하지 않는다. 금요일 밤에는 부서 회식을 핑계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할 때도 종종 있었다. 물론 아내는 화를 내지만 '이런 재미도 없이 어떻게 회사를 다니냐'고 항변하면 그럭저럭 넘어가곤 했다. 지난 주 금요일 밤에도 그렇게 넘겼고 토요일 밤에는 술병이 안 나았다는 핑계로 앓는 소리를 내면서 그냥 넘겼고, 일요일 밤에는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갔던 것이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휴일 전야, 오늘도 술에 절어 들어오면 가만있을 아내가 아니라는 것을 안다. 김과장에게 지금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아내의 기대감에 부흥하는 잠자리 그 자체였다.

> '아내가 극락을 경험하게 힘을 좀 주시던가… 아니면, 휴일 전야마다 피해 갈 지혜를 주시던가…'

이제 막 마흔 줄에 들어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나 생각하면 나오는 건 한숨뿐이지만 어쩌겠나. 욕구도 안 생길 뿐더러 억지로 욕구를 끌어 올려봤자 그것이 얼마 가지도 않는 것을…. 아내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바람 필 기회만 모색하는 동기녀석을 보면 그 에너지가 그저 놀라울 뿐이다. 이런 속사정도 모르고 다른 여자가 있냐며 화장실 갈 때 마다 핸드폰을 뒤지는 것은 물론 와이셔츠에 코를 박고 킁킁대는 아내도 안됐고, 자기 자신도 불쌍하다 싶다.

저만치 앞에서 갈짓자로 걷고 있는 남자를 보면서 김과장은 생각했다.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취한 척해서 잔소리를 듣고 말 것인가, 아니면 의무방어전에 임했다가 결국 아내의 실망한 얼굴과 정면으로 마주칠 것인가….

'부처님, 제게도 자비를 좀 베풀어 주시지요. 이 불쌍한 중생에게 아내가 극락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좀 주시던가, 아니면 휴일 전야마다 피해 갈 지혜를 주시던가….'

어이없는 기도를 올리며 집으로 돌아온 길, 그러나 밤 열시에 문을 열어준 사람은 아내가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인 아들녀석이다.

"엄마는?" "아래층 아줌마랑 근처 호프집에서 한잔 하고 오신대요. 아빠 늦게 오실 거 뻔하니까 엄마도 좀 놀다 오시겠대요."

김과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좀 전에 올린 기도가 너무 빨리 이뤄진 것이 어째 떨떠름하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아내가 자신만의 극락왕생 비법을 찾은 것은 아닐까?'

김과장은 침대에 눕는 대신 컴퓨터를 켰다. 그리고 건강식품 사이트를 열심히 뒤지기 시작했다.

〈연애 칼럼니스트〉

뉴스퀴즈

65. 남북의 열차가 반세기만에 군사분계선(MDL)을 넘었습니다.

남북은 지난 17일 경의선 문산역과 동해선 금강산역에서 기념행사를 갖고 이날 오전 북측과 남측을 향한 열차를 동시에 운행했습니다.

열차가 남북을 오가는 것은 경의선의 경우 1951년 6월 12일 이후 56년 만이며 동해선은 1950년 이후 57년 만입니다. 이날 남과 북에서 출발한 열차가 각각 도착한 역은 어디일까요?

① 개성역, 제진역 ② 개성역, 서울역
③ 부산역, 제진역 ④ 광주역, 대구역

참여 방법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25일(음 4월 9일 己未)

子 36년생 옛 일이 괴로움으로 나타나지만 오히려 복이 된다. 48년생 생각지도 않은 잔치 집에 갈수도 있으나 기분은 미미하다. 60년생 속전속결로 추진하면 대재가 생긴다. 72년생 외려내허 내적인 것에 마음을 쓰라. 84년생 중심을 잡으면 가사가 평안하리라. 행운의 숫자 : 01, 38

丑 37년생 결정은 신중하게 하라. 49년생 추진하는 일을 꼼꼼히 점검하면 실패는 없다. 61년생 부부간에 다정한 시간을 마련해 보라. 73년생 자녀의 고민을 먼저 생각해 보고 대화를 해보라. 85년생 주변의 이웃과 친척을 찾아뵙고 안부를 확인 해보라. 행운의 숫자 : 05, 20

寅 38년생 자기의 지위는 자신이 지키도록 노력하라. 50년생 친한 사람을 얄보지 마라 흉한 일이 생긴다. 62년생 춤추고 노래를 하니 즐겁기만 하다. 74년생 교통사고를 주의하고 음주운전은 아예 생각도 하지마라. 행운의 숫자 : 03, 12

卯 39년생 오후에 화재를 주의하면 평안하다. 51년생 상대가 원하면 무엇이든 다주어라. 63년생 어려움이 오지만 심성의 안정을 지키면 대고는 없다. 75년생 속 타는 일이 생기지만 걱정할 일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31, 35

辰 40년생 사소한 말이 시비가 될 수도 있다. 52년생 오늘은 문단속을 잘해야 하루가 편안하리라. 64년생 몸은 고달프고 마음은 우울하니 마음의 안정을 취하라. 76년생 순리대로 처리하면 문제는 없다. 행운의 숫자 : 34, 44

巳 41년생 귀한 물건이 안보일 수도 있으니 문단속을 잘하라. 53년생 말다툼은 시비로 비화되니 절대로 피해야 한다. 65년생 시비는 화해로 처리해야 뒤탈이 없다. 77년생 저녁 늦게 외출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행운의 숫자 : 39, 40

午 42년생 생각대로 행해도 거리낌이 없고 마음은 편안하리라. 54년생 멀리서 친구가 오니 즐거우리라. 66년생 바라던 일이 꼭 이루어진다. 78년생 뜻밖의 재난이 올 수 있으니 주변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14, 29

未 43년생 아내가 힘이 드니 아내를 살펴보라. 55년생 직장과 자녀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67년생 자녀는 자신의 미래이니 자기의 노력에 따라 달라진다. 79년생 좋은 사람과 하루가 되리라. 행운의 숫자 : 17,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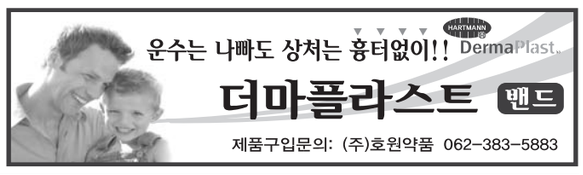
申 44년생 수하인과의 금전거래는 불량거래가 될 수도 있다. 56년생 양보 받기 보다는 먼저 양보하면 좋은 날이 된다. 68년생 조금만 더 노력하면 주변의 부러움을 살 것이다. 80년생 편안한 하루가 된다. 행운의 숫자 : 03, 26

酉 45년생 숨이 가쁜 하루로다. 57년생 도움을 청하는 사람에게 성의껏 협조하라. 69년생 할 일은 분명하게 처리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라. 81년생 오전은 흉하나 오후는 길하니 마음 놓고 지내라. 행운의 숫자 : 09, 40

戌 46년생 상황이 변하니 주의 깊게 살펴보라. 58년생 근처에서는 괴로움이 먼 곳에서는 좋은 소식이 온다. 70년생 도움을 주면 답은 그 이상이다. 82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차근차근 전진하라. 행운의 숫자 : 07, 25

亥 47년생 나이는 숫자일 뿐 용감하게 진행하라. 59년생 되로 주고 말로 받으니 활동을 많이 하라. 71년생 희망은 꼭 이루어진다고 믿는 이에게 온다. 83년생 흐린 날을 대비해서 우산을 준비하라. 행운의 숫자 : 21, 38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시위중에 돼지는 왜 죽이나? 네티즌 비난 봇물

축구 국가대표 김진규(22·전남 드래곤즈)와 여자친구인 신인 배우 홍진영(22)가 이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니 홈피 방문자가 폭주하는 등 한 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네티즌들의 시선을 끌었다.

장진(36) 감독이 23일 서울여대 대학원에 재학중인 열 살 연하 신부 차은영씨와 백년가약을 맺었다는 소식도 화제를 모았다.

탤런트 겸 가수 현영(31)이 방송에 출연, 성형수술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녀의 '연도별 성형 수술 사진'이 또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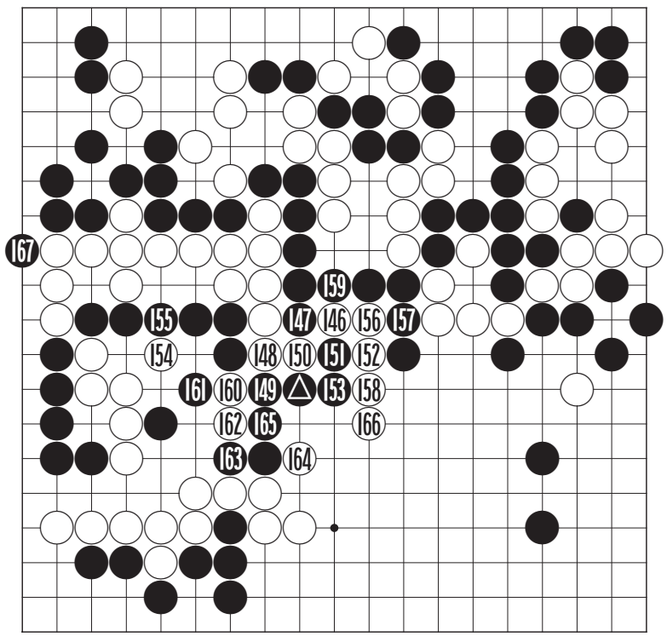
SBS '김승현 정은아의 좋은 아침'에 출연한 현영이 "(인터넷에 뜬 수술 전의 사진을 보고) 난감했다기보다 놀라웠다"면서"연도별로 조금씩 한 것인데 변해가는 과정을 퍼레이드로 나열한 정성이 대단하다"고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부터다.

경기도 이천 시민들이 특수전사령부 이전 계획 철회 시위를 벌이면서 어린 돼지의 사지를 묶고 네 방향으로 잡아 당겨 찢어 죽이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을 두고 비난도 쏟아졌다. 네티즌은 "어린 돼지를 찢어 죽이는 것과 군부대 이전이 무슨 상관이냐", "돼지 능지처참이 말이 되느냐"는 등의 비난성 댓글을 올렸고, '군부대 이전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와 관련,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외 영어·중국어·일어 등으로 애국가를 불러 화제를 모았던 '애국가녀'가 탤런트 지망생이라는 사실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공개된 '스타크래프트2', 23일 전국적으로 개봉한 '캐리비안의 해적 : 세상의 끝에서'등도 검색어에 올랐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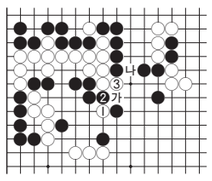
지난 23일 결혼식을 올린 장진 감독과 10살 연하의 신부 차영은씨.



제16회 랑일배 광주·전남 직장바둑대회

방심이 낳은 패착 10보(146~167)

白 김광식 5단 ((주)송림) 黑 김영수 5단 (빛고을교사회)



〈참고도〉

김 영수 5단이 우세한 바둑을 하염없는 욕심으로 수렁으로 몰아가고 있다. 흑 ◬로 일단 봉쇄한 듯 보이지만 사방이 허술해서 거미줄을 친 듯 허약한 모습이다.

김광식 5단도 이런 거미줄은 너무도 허술해서 아무렇게나 두어도 쉽게 뚫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백 146이 깊게 수를 보지 못하고 멋을 부린 수로 패착이 되고 말았다. 흑이 147로 푹 찔러오는 순간 한수가 줄어져 좌변 흑과의 수상전이 급하게 되었고 기호지세로 158까지 나가고 160으로 끊어 보았으나, 이미 거미줄이 동아줄이 되어 백 대마를 옥죄고 있다. 146으로는 '참고도'의 백 1로 붙이는 수가 있었다. 흑은 2로 둘 수 밖에 없는데 3으로 나가면 '가'와 '나'가 맛보기가 되어 흑의 대책이 없다.

김광식 5단은 166으로 늘어 옥쇄를 선택한다. 흑 167로 젖혀서는 백 대마가 거꾸로 수부족. 바둑도 끝나버렸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해설위원〉

KYOBO 교보생명

바둑소식

김은선, 지지옥션배 3연승

김은선 3단이 최근 한국기원 1층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회 지지옥션배 여류 대 시니어 연승대항전 제14국에서 김종준 5단을 226수 만에 백불계로 꺾고 3연승을 거뒀다.

여류팀은 김 3단과 박지은 초단이 각각 3연을 거두는 등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연승전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대회에서 여류팀은 8명의 기사들이 남아있는 등 우승을 가시권에 두고 있다.

반면 시니어팀에 남은 기사는 조훈현, 서봉수 9단 2명 뿐이다.

제한시간 10분, 30초 초읽기 3회로 진행되는 이 대회 우승상금은 5천500만원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912>

Can you make it 3 inches shorter?

3인치 더 짧게 고쳐줄 수 있나요?

A:That dress looks marvelous on you.
B:Thanks. **Can you make it 3 inches shorter for me?**
A:Of course. It'll be ready by Thursday.
B:Fine. I want to wear it to a wedding reception on Saturday.

A:그 옷,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B:고마워요. **3인치 더 짧게 고쳐줄 수 있나요?**
A:그럼요, 목요일까지 될 수 있습니다.
B:됐군요. 저는 토요일 결혼잔치에 입고가고 싶거든요.

marvelous : 훌륭한, 놀라운
좀 더 진한 색깔 있습니까?
= Have you got something darker in color?
어깨부분을 더 높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I think the shoulders need to be raised.
허리부분을 0.5인치 줄였으면 좋겠네요.
= I want to the waist 1/2 an inch tighter.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요우 니혼고 <912>

碁(ご)をうつのが好(す)きです

바둑을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A:山田さんの趣味(しゅみ)は何ですか?
B:特(とく)に、これと言(い)ったものはないんですが。**碁(ご)をうつのが好(す)きです。**
A:私は音樂(おんがく)が好きで、ピアノをよく彈(ひ)くんですよ。
B:ピアノですか。うらやましいですね。私はピアノは苦手(にがて)ですから。

A:야마다씨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B:특별히 이렇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바둑을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A:나는 음악을 좋아하여, 피아노를 자주 칩니다.
B:피아노 말입니까. 부럽군요. 나는 피아노는 잘 못하니까…

趣味(しゅみ) : 취미
特(とく)に : 특히, 특별히
これと言(い)ったもの : 이렇다 할 수 있는 거
碁(ご)をうつ : 바둑을 두다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쫑구워 <103>

我带吃的

제가 먹을 것을 가지고 갈게요

A:明天去郊游，我们带什么?
Míngtiān qù jiāoyóu, wǒmen dài shénme?
밍티엔 취 찌아오여우, 워먼 따이 션머?
B:**我带吃的吧。**主要带面包和水果。
Wǒ dài chī de ba. zhǔyào dài miànbāo hé shuǐguǒ.
워 따이 츠 더 바. 주야오 따이 미엔빠오 허 슈이구워.
A:我带喝的吧。
Wǒ dài hē de ba。
워 따이 허 더 바.
B:我再带一些纸巾。
Wǒ zài dài yì xiē zhǐjīn。
워 짜이 따이 이 시에 즈 찐.

A: 내일 소풍가는데, 우리 뭘 가지고 갈까?
B: **나는 먹을 것을 가지고 갈게.** 주로 빵과 과일을 가지고 갈게.
A: 나는 마실 것을 가지고 갈게.
B: 나는 돗자리를 가지고 갈게.

郊游 [jiāoyóu] 교외로 소풍가다
带 [dài] (몸에) 지니다. 휴대하다
主要 [zhǔyào] 주로, 대부분

〈호남대학교 공자아카데미〉
☎ 3838-868

한자 이야기 <529>

살신성인 (殺身成仁)

죽일 살, 몸 신, 이룰 성, 어질 인

살신성인(殺身成仁)은 몸을 죽여 인(仁)을 이룬다는 뜻으로 자신을 희생하여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경우를 비유한다.

'논어(論語)'의 '위령공편(衛靈公篇)'에서 공자는 "지사(志士)와 인인(仁人)은 삶을 구하여 인을 해침이 없고, 몸을 죽여 인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有殺身以成仁)."라고 하였다.

여기서 '지사(志士)'란 원대한 뜻을 품은 사람이고, 인인(仁人)은 어진 덕을 갖춘 사람이다. 원대한 계획을 세운 사람(志士)과 남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仁人)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공동체의 화목(仁)을 깨트리지 않는다. 오히려 손해(損害)를 보고 희생될지라도 공동체의 유지와 조화(調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다.

한편 '멸사봉공(滅私奉公)'이란 말도 있다. 즉 사심(私心)을 버리고 공공(公共)을 받든다는 뜻이지만, 여기서 '공(公)'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패전(敗戰)하기 전에 이 '공'을 '국가(國家)' 특히 '천황(天皇)'이라고 하였다. '멸사봉공'은 천황을 위한 개인의 희생은 당연하다는 명분으로 활용되었다.

〈한예원(韓睿媛)〉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6505